

금소법 시행에도 또 불완전판매?... 금융당국 책임론 부상

금감원, 불완전판매 배상안 마련중
5대 은행서 H지수 ELS 8.4조 판매
지수 현수준 머물면 '3조 손실' 예상
투자자들 '불완전판매' 의혹 제기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원금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 책임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과거 불완전판매 논란 당시 제도보완에 나섰지만 같은 일이 또 다시 벌어졌기 때문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홍콩H지수 ELS 상품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인정될 경우 배상 비율 기준안을 마련해 금융사와 소비자 간 분쟁에 대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이 대표 민원 사례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하면 금융사들은 이를 근거로 자율 조정에 나서는 방식이다. 내년 초 ELS 상품의 손실이 본격화할 경우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뉴시스

신속하게 분쟁조정에 착수하려는 금감원의 취지다.

홍콩H지수 연계 ELS상품은 은행권을 통해 많이 판매됐다.

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이 판매한 홍콩H지수 연계 ELS 중 내년 상반기 만기 도래 잔액은 8조4000억원이다. 홍콩H지수가 현 수준에 머물 경우 3조원이 넘는 규모의 손실이 예상된다.

ELS는 리스크가 높은 장외 파생상품으로 기초자산 가격이 손실 발생 기준선을 밑돌면 만기 시점에 원금 손실(녹인)이 발생한다.

현재 H지수 상황으로 보면 '녹인형' 상품의 원금과 이자를 받으려면 내년 상반기 홍콩H지수가 2021년 상반기의 70%(1만200포인트)수준은 되어야 한다. 지수가 반등하지 않는 한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노녹인형'의 경우도 만기 시 기초자산 가격이 통상 65% 이상이면 약정된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이마저도 현재 지수 수준으로는 원금 손실이 불가피하다.

홍콩H지수 ELS 투자자들은 은행 등 판매사들이 ELS를 원금이 보장되는 안전한 상품인 것 처럼 안내했다며 불완전판매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역시 가장 눈여겨보는 대목이 불완전판매 여부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번 H지수 사태에 대해 은행권의 책임도 있지만 금융당국의 책임도 크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19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사태로 투자자들이 대규모 원금손실이 발생했다. 당시에도 은행에서 고위험 상품을 판매했고, 불완전판매 보상이 진행된 바 있다.

금융당국은 DLF사태를 계기로 고위험 상품판매에 대한 관리·점검을 벌였고,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원천 차

단하겠다고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시행했다.

하지만 DLF사태는 고위험 사모펀드였기 때문에 고위험 공모펀드 판매에 대해서는 관리·점검 등이 꼼꼼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금소법 시행 후 은행 창구에서 거래 시간이 크게 늘어 고객들의 불만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적합성 평가의 간소화를 일정 수준 허용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일처리를 빨리한다고 보이겠지만 만기가 돌아오기도 전 은행권을 향해 면피발언과 책임전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소법 당시 모든 고위험 상품들을 전수조사하고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사모펀드만 집중 관리한 금융당국도 책임이 있다"며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은행이 잘못했으니 책임져라'는 태도는 금융당국이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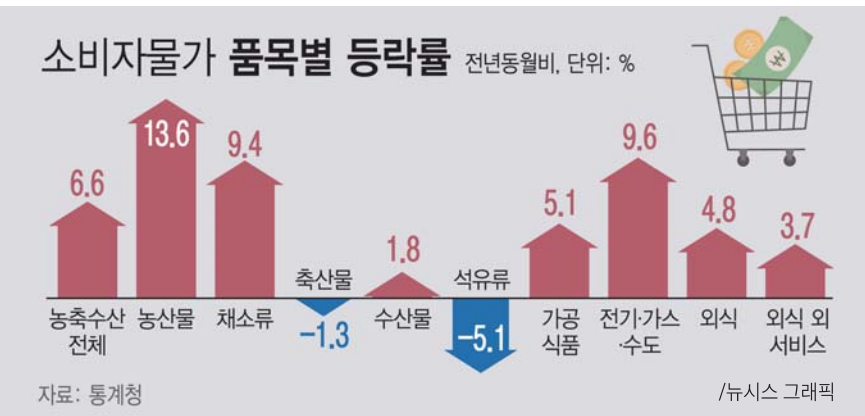
소비자물가 4개월째 3%대 상승... 농산물값 '폭등'

통계청, 11월 소비자물가 동향
상품 물가 3.8%, 서비스 3.0%올라
농산물값 2년6개월만에 최대폭 상승

소비자물가가 지난달 3.3% 오르며 4개월째 3%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농산물값이 2년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다만 오르는 속도는 8, 9, 10월에 비해 꺾였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 대비 3.3% 상승했다. 올해 8월(3.4%)과 9월(3.7%), 10월(3.8%)에 이어 4달 연속으로 3%대를 나타냈다. 6월과 7월에 각각 2.7%, 2.3%로 다소 안정화한 뒤 나아지지 않는 모습이다. 앞서 4월(3.7%), 5월(3.3%)에도 3% 선을 넘긴 바 있다.

품목별로, 상품과 서비스 물가가 1년 전보다 각각 3.8%, 3.0% 올랐다. 상품 가운데 농축수산물 가격이 6.6% 상



승했다. 채소류(9.4%)와 과실(24.1%), 곡물(7.7%) 등이 오르면서 농산물 가격 상승률이 무려 13.6%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21년 5월(14.9%) 이후 30개월 사이 최대 상승폭이다. 사과(55.5%)를 비롯해 오이(39.9%), 파(39.3%), 토마토(31.6%), 굴(16.7%), 쌀(10.6%) 등이 크게 올랐다. 통계청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채소

는 생육기간이 짧기 때문에 기상여건이 좋아지면 많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지만, 과실 같은 경우 1년 단위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 가격이 하락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농산물 가격도 특별한 요인이 없으면 낮아지는 형태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채소류는 생육 기간이 짧기 때문에 새로 출하가 시작되면서 떨어질 것"이라며 "과

일은 1년에 한 번 나오면서 작황 부진 영향이 조금 더 가겠지만, 지난달과 비교하면 (상승폭이) 줄었다"고 말했다.

축산물 가격은 1.3% 내렸다. 국산 쇠고기(-3.6%), 돼지고기(-2.4%) 등이 가격도 하락했다. 수산물 가격은 1년 전과 비교해 1.8% 올랐다.

공업제품은 2.4% 상승했다. 우유(15.9%), 아이스크림(15.6%), 빵(4.9%) 등이 많이 올라 가공식품은 5.1% 상승했다. 소주와 맥주, 냉동식품 등의 가격이 올라간 영향으로 풀이된다.

휘발유값(2.4%)은 올랐으나 경유(-13.1%), 등유(-10.4%), 자동차용 LPG(-5.8%) 등이 하락하면서 석유류 물가는 5.1% 내려갔다. 석유류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체 물가를 0.25%포인트(p) 끌어내렸다. 전기료(14.0%)와 도시가스(5.6%), 상수도료(4.6%) 등 전기·가스·수도는 9.6% 상승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차기 손보협회장에 이병래 단독 추천

손해보험협회 차기 회장으로 이병래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사진)이 내정됐다. 손해보험협회 회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제55대 협회장으로 이병래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을 총회에 단독 후보로 추천키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손보협회는 오는 20일 총회를 열고 차기 회장 선임을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내정자는 대전고와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32회로 관가에 입문했다.

금융감독위원회 보험감독과장,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 대변인, 금융서비스국장에 이어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등을 지냈다. /김주형 기자 gh471@



추경호 "수출·제조업 중심 경기회복 가시화"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제
"국제유가 변동성 등 불확실성 여전
특별물가안정체계 계속 운영할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우리 경제에 회복 흐름이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신도시 교통망 확충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추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11월 수출은 품목·지역별로 고른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어 수출 회복세가 지속될 전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월별 변동성은 있지만 수출·제조업 중심의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고 했다.

또 "대내외 여건이 결코 녹록지 않은 만큼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를 공고히 하는 한편 회복의 온기가 경제전 부문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물가상승률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외부 충격이 없는 한 추세적인 물가안정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 대비 3.3% 상승하면서 전월(3.8%)보다 상승 폭이 축소됐다.

추부총리는 "국제유가가 진정되면서 휘발유 가격이 지난 8월 초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주요 농산물 가격도 수급 여건이 개선돼 전월보다 큰 폭으로 하락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또 근원물가 상승

률(3.0%)을 언급하며 "미국과 유럽의 근원물가가 예전보다 낮아졌지만, 아직 4~5%대를 보이고 있는 데 비해 훨씬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했다.

추부총리는 "국제유가 변동성, 기상여건 등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라며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계속 운영해 나가면서 물가·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신도시 등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도 발표했다. 추부총리는 "신도시 등 개발사업을 위한 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교통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해 핵심교통망 구축시기를 1년 앞당길 것"고 밝혔다. 지자체와 사업시행자 간 신속 협의 또는 직권 조정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 가능한 갈등 관리체계를 도입해 교통사업 지연을 방지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또 "일정 요건을 충족한 광역교통사업은 재정사업 신속 예비타당성조사, 공공기관 예타 면제를 적용하는 등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생명보험협회장에 '만장일치' 김철주

김철주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위원장(사진)이 제36대 생명보험협회장으로 선임됐다.

생명보험협회가 5일 생명보험업계 사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개최하고 제36대 회장으로 김철주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만장일치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9일부터 2026년 12월 8일까지 3년 동안 생명보험협회를 이끌게 된다.

김 회장은 1963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조지아주립대 대학원 재정학 석사를 마쳤다. 1985년 제29회 행정고시를 합격한 후 재정경제원, 재정경제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김주형 기자

